



공식 press room Tsyburen  
 사무실에서 라운 테이블에서

점심식사 초대  
 받아간 식당  
 점심부터 Ome Shud!



시합 전날 복잡한 의전 행사들. 공식적인 미팅. 공식 식사. 점심때부터 보드카 원샷을 외쳐 술 못하는 사람은 그 나라 살기 힘들. 회식자리에서 아무나 일어나 간단한 축하인사 말을 하고는 건배를 제의해서 안마시면 싫다는 의미로 받아 드려 아주 불쾌해 함. 손님이 술이 취해 필름이 끊기는 모습을 보면 가장 잘 대접했다고 생각 함.